

2011 년 봄 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25
고린도후서에서
(3)
화목하는 수단

성경: 고후 5:14-21, 6:11-13

- I.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수단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롬 5:10, 고후 5:14-21.
- II.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기 위하여 두 단계가 요구된다—19-20 절.
 - A. 화목의 첫 번째 단계는 죄인들을 죄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19 절.
 1.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고전 15:3, 눅 24:46-47, 요일 2:12.
 2.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객관적인 방면이다. 이 방면에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고,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분께 죄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다—벧전 2:24, 사 53:11-12, 히 9:28, 골 1:22, 롬 8:3.
 - B. 두 번째 단계는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사는 믿는 이들을 육체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고후 5:20.
 1.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사람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셨다—14-15 절.
 2.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관적인 방면이다. 이 방면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어 하나님께 심판받고 죄를 없애시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21 절.
 3.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아니고 그분과의 완전한 조화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이 필요하다—20 절.
 - C. 두 단계의 화목은 성막의 두 휘장으로 묘사되는데, 두 휘장은 다 유일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출 26:31-35, 37, 히 9:3.
 1. 첫째 휘장은 ‘막’ 이라고 불린다—출 26:37.
 - a. 화해시키는 피로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이끌린 죄인은 이 막을 지나 성소(the Holy Place) 안으로 들어갔다.
 - b. 이것은 첫 번째 단계의 화목을 예표한다.
 2. 둘째 휘장은 여전히 죄인을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과 분리되게 했다—31-35 절, 히 9:3.
 - a. 이 휘장은 죄인이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이끌릴 수 있도록 갈라져야 했다—마 27:51, 히 10:19-20.

- b. 이것은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을 예표한다.
- 3. 고린도후서의 목표는 믿는 이들을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 그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고전 6:17.
 - a. 고린도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과 어느 정도 화목되었지만 아직도 육체 안에, 즉 혼, 겉사람, 타고난 존재 안에 살고 있었다. 육체의 휘장, 겉사람의 휘장이 아직도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있었다—2:14-15, 히 10:19-20.
 - b. 우리는 둘째 휘장을 통과할 때에만 하나님과 철저히 화목되어 그분을 완전히 누릴 수 있다—고후 5:20.

III.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전 15:3, 고후 5:14-15.

- A.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살게 한다.
 - 1. 우리 자신을 향해 사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통제와 지시 아래 있고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관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주님을 향해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통제와 지시 아래 있고 그분을 만족하게 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15 절.
- B.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의미에 있어서 더 깊다—롬 14:7-8.
 - 1.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나와 주님이 여전히 돌임을 함축한다.
 - 2. 주님을 향해 사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남편과 하나이듯이 내가 주님과 하나임을 가리킨다.

IV.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은 우리의 마음을 넓어지게 할 것이다—고후 5:20, 6:11-13.

- A.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정도에 달려 있다.
- B. 우리의 마음이 좁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부분적으로만 화목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표시이다—12 절.

V. 화목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대되고, 우주적인,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가 된다—요 14:2, 20, 23.

- A.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sanctuary), 그분의 거처, 그분의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계 21:2, 10, 16.
- B. 아가서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처리의 두 방면—자아의 파쇄와, 보다 깊은 의미에 있어서 육체의 처리—을 본다. 십자가의 처리의 이러한 두 방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sanctuary)가 된다—6:4.
 - 1. 이 성소(sanctuary)는 하나님 자신인 지성소이다.
 - 2.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성소(sanctuary)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
 - 3.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고자 하는 열망을 그분에게 주고,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사랑이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는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합병되어 그분의 거처가 된다—고후 5:14, 요일 4:19, 8, 16, 계 2:4, 요 14:21, 23, 엡 3:17.